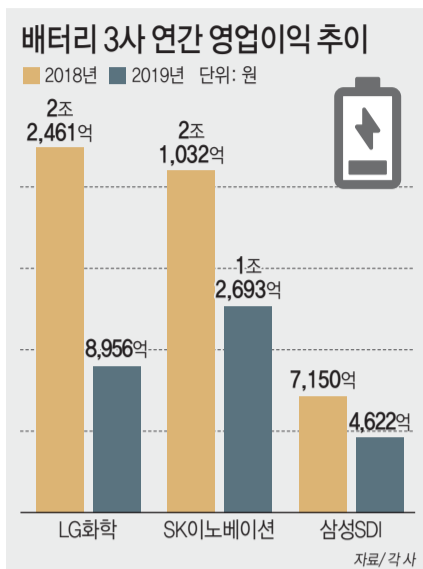


배터리3사, ESS 등 악재에 '방전'... 올해는 반등할까

삼성SDI·SK이노·LG화학
전년비 영업이익 일제히 하락
ESS 관련 일회성 비용 발목
배터리 소송전 등 난제 주목



국내 배터리 3사가 최근 연이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올해 본격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터리 업계가 여전히 도약하기엔 힘이 부족한 모습이다. 삼성SDI를 시작으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 주요 업체들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산재해 있는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원인 규명·배터리 소송전 등이 악재로 작용된 모양새다. 이에 올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SS화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LG화학과 삼성SDI는 여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 삼성SDI는 공시를 통해 연간 매출 10조974억원, 영업이익 4622억원으로 창립 이래 첫 10조원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35.4% 감소했으며, 4분기 기준 영업이익도 2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87억원)과 비교했을 때 9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SDI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꼽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ESS 안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다.

앞서 2017년 8월 고창 해상풍력연계 ESS가 불에 탄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화재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민관합동 ESS화재 조사위원회가 화재 원인 조사 결과 및 대책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5건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2차 조사가 우려됐다.

업계에 따르면 2차 조사는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가 각각 3건, 2건씩 탑재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중 화재 원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도 'ESS화재'에 발목이 잡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LG화학은 지난해 연간 매출 28조6250억원, 영업이익 8956억원을 기록해 각각 1.6% 늘고 60.1% 감소했다. 특히 전지 부문 4분기 영업이익은 -24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958억원) 대비 대폭 줄어 적자 전환했다. LG화학은 지난해 3분기(712억원)을 제외한 전 분기 전지부문에서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아울러 4분기 전체 영업손실은 27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ESS화재 충당금 인식에 따른 손익 악화 현상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자체 조사 결과 ESS화재 원인은 배터리셀 문제가 아니라고 파악했다"며 "다만 관련 산업의 신뢰 회복과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고강도 화재방지대책을 세웠고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영업손실이 275억원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ESS충당금을 반영하기 전에는 536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사정도 좋지 않은 않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연간 매출 49조8765억원, 영업이익 1조2693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약 8.5%, 39.6% 줄었다. 또한 배터리 사업부문에서는 신규 수주에 따른 공장 증설과 연구개발 확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폭이 697억원 커진 -1124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은 컨퍼런스콜에서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 견본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증가와 재고 관련 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당사는 수주물량 대응을 위해 작년 말 중국과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완공했고 올해 상반기 양산 목표로 현재 시험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헝가리에 유럽 제2공장, 미국 조지아주에 신규 공장을 작년 3월에 착공해 현재 건설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車배터리 BEP 달성... 악재 속 선방

(손익분기점)

LG화학 2019년 실적

영업익 8956억... 60.1% 감소
시황 악화에도 실적 달성 성과

LG화학이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다.

LG화학은 3일 지난해 연간 매출 28조6250억원, 영업이익 895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8년 기준 연간 매출(28조1830억원), 영업이익(2조2461억원) 대비 각각 1.6% 늘고 60.1% 감소한 수치다. 4분기 매출은 7조4612억원, 영업이익은 -275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사업 부문별 4분기 실적에서는 석유화학·첨단소재 부문을 제외한 전지·생명과학·팜한농 부문에서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부문 매출은 3조8980억원, 영업이익 3158억



LG화학 여수공장.

원을 나타냈고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2011억원, 영업이익 8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지 부문에서는 특히 영업손실이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영업손실은 2496억원으로 전년 동기(958억원)와 전 분기(712억원) 대비 모두 적자전환했다.

차동석 LG화학 CFO 부사장은 "연간으로는 마·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도 전지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ESS 관련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전사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며 "특히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으나 석유화학부문의 계절적 비수기 및 시황 악화에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해 전지부문의 자동차전지 손익분기점(BEP)에 준하는 실적 달성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제주항공, 항공기 소독 등 방역 강화

기존 소독에 편당소독 추가

제주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제주항공은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항공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달 3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승객이 내리는 즉시 소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항공기 운항종료 후 매일 소독을 실시했으나 이에 더해 편당 소독도 추가

한다.

또한 지속 시행 중인 방역조치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승무원들은 비행 전 발열·기침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발견 시 바로 업무에서 제외한다.

제주항공은 이밖에도 항공기에 체온계 및 손세정제 등을 비치해 필요 시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안내방송도 한·영·중 3개 국어로 실시해 승객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모든 방역 조치는 사내 위기대응센터를 통해 관리된다.

/김수지 기자

쌍용차, 100만원 할인 등 구매혜택 '풍성'

첨단주행 안전기술 무상 적용

쌍용자동차가 2월달 고객들에 제공할 다양한 구매 혜택을 2일 공개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 전원에 첨단주행안전 기술을 무상 적용하고, 노후 차량 보유 고객에는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란도와 티볼리 구매 고객에는 '딥컨트랙 패키지'를 무상으로 장착해준다. ▲사각지대 감지(BSD) ▲차선변경 경보(LCA)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RCTA) ▲탑승객 하차 보조(EAF) 등이다. 50만원 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G4렉스턴(사진)에는 '스마트드라이빙 패키지'에 블랙박스 및 프리미엄 튜닝을 포함한 '스페셜 패키지'를 무상 제공한다. ▲긴급제동 보조(AEBS) 차선 이탈 경보(LDWS) ▲스마트하이빔(HBA) ▲전방차량 출발 알림(FVSA)을 포함한다. 100만원 할인을 선택 가능하다.

7년 이상 노후차량을

보유한 고객에는 50만원을 특별 할인해준다. 수도권 전역에 확대되는 노후차 운행 제한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금융 상품 혜택도 있다. 렉스턴 스포츠와 칸을 제외한 전 모델을 구매시 선수율 없이 0.9~5.9% 저 이율이나 장기 할부를 제공한다. 60/72개월 할부시 G4렉스턴과 티볼리, 렉스턴스포츠 및 칸은 50만원, 코란도는 40만원을 할인해 주고, 36/48개월 할부시에는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증정한다.

사업자 고객에는 렉스턴 스포츠와 칸 구매시 자동차세 10년분인 28만5000원을 추가 할인한다. 모델별로 재구매 대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융합사업 호조에 영업이익 432억, 36.3% ↑

LS산전 2019년 4분기 실적

융합사업부문 영업이익 102% 증가
스마트그리드 매출 확대 등 영향

LS산전이 융합사업에서의 수익성 증가로 전체 실적까지 호조세를 나타냈다.

LS산전은 3일 지난해 4분기 매출 6992억원, 영업이익 43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8년 4분기 매출 6304억원, 영업이익 317억원 대비 각각

10.9%(688억원), 36.3%(115억원) 늘어난 수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기 및 융합 매출증가와 융합사업의 수익성 증가가 꼽힌다. 반면 지난 4분기 당기순이익은 128억원으로 전년 동기(144억원) 대비 11.1%(16억원) 소폭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융합사업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융합업의 4분기 실적은 매출 1387억원,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102% 증

가했다. 앞서 2018년 4분기 융합사업의 매출은 719억원, 영업이익은 -212억원으로 적자였다.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는 태양광과 스마트그리드의 매출 증가 및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자동차 사업 부문에서는 경상연구 개발비 등 비용증가로 수익성이 감소해 매출은 7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에 그쳤으며, 영업이익은 37% 감소한 55억원을 기록했다. /김수지 기자